10·25 재보선 후보 인물·정책 검증 ⟨2⟩ 화순군수

‘대표 브랜드 육성·기업유치’ 비전 3파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3개월도 채 안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전형준 전 군수가 재판 도중 지난 달 18일 사직함에 따라 보궐선거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화순군은 민선 들어 3명의 군수가 사법처리되거나 중도 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군민들도 선거만 치르고나면 반복되는 군수 궐위사태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만큼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제대로 된 후보를 뽑자는 여론이 높다.

이번 보궐선거는 정완기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전완준 후보, 한나라당 임근옥 후보간 3파전 구도다.

세 후보는 지난 11일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협약문에 서명하고 5건씩의 정책 공약을 화순군선관위에 제출했다.

전남도의원과 금융결제원 감사를 지낸 민주당 정 후보는 ‘화합하는 화순, 잘사는 화순’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화순을 대표하는 고품질 브랜드 개발을 비롯 제2 너릿재, 춘양~장흥, 북면~담양, 남면~무등산간 도로 등 교통망 확충, 운주사·개천사·쌍봉사 등 운주사권 상설 테마 관광지 개발, 중형주택 수요 해소를 위한 택지 개발, 노년 신문 구독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성안그룹 회장으로 전형준 전 군수의 동생인 무소속 전 후보는 “아우가 형을 대신해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며 기업가 정신과 상생의 정치문화를 역설하고 있다. 우수 기업 유치와 유비쿼터스(Ubiquitous) 주거단지 개발을 통한 인구 10만 만들기, 군민소득 매년 10% 증대, 군 재정자립도 30% 달성, 농축특산물 판매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잘사는 화순 만들기 비전 1030’플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화순신문 사장 출신인 임근옥 한나라당 후보는 “지역정서에 편승하지 않고 화순의 미래를 책임질 비전을 지닌 인물이 군정을 책임져야 한다”며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제3순환 도시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광주지하철 화순 연장,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지 구축, 의·치대 유치, 생태도시 개발 등이 공약의 골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임근옥(52) 한나라당

정완기(64) 민주당

전완준(47) 무소속

	임근옥	정완기	전완준
주요경력	화순신문사 사장	전남도의회 의원	성안그룹 회장
학력	조선대 환경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성균관대 법률학과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1년 휴학
재산	3천만원	5억3천933만원	29억2천130만원
병역	병역미필	병역미필	병역필
전과	없음	없음	없음
주요공약	-제3순환도로, 광주지하철 연장 -기업투자유치·일자리창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지구축 -의·치대, 간호대 유치 -자연친화적 생태도시 개발	-화순대표 고품질 브랜드개발 -제2너릿재등 도로망확충 -운주사권 관광지 건설 -중형주택 건설 택지 개발 -노인복지 및 명문고 육성	-기업유치로 인구10만만들기 -군민소득 매년 10%증대 -군재정자립도 30%달성 -농축특산물 판매 30%향상 -사회문화·교육여건 개선

정완기 “제 2너릿재 터널·테마 관광지 개발”
전완준 “인구 10만 견인·첨단 주거단지 조성”
임근옥 “지하철 화순 연장·일자리 창출 전력”

■중반 판세

민주당 정완기 후보와 무소속 전완준 후보가 박빙의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게 양측의 공통된 진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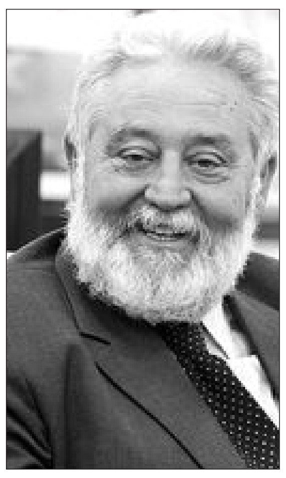
민주당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정 후보가 전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밝혔다. 선거 운동 초반 다소 밀렸던 정 후보가 도의원과 금융결제원 감사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타면서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전 후보측은 전 후보가 정 후보를 3~5%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수 성가형 CEO 출신인데다 중도 사직한 전형준 전 군수의 친동생이라는 점에 일부 ‘동정론’도 가세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불거진 모 후보 지지자의 금품 살포 사건으로 선거판이 출렁거리고 있어 표심의 향방을 읽기엔 아직 이르다.

“정부 강력 지지 긍정 평가”

■여수 온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



로세르탈레스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은 여수의 2012세계박람회 유치 가능성을 “매우 좋다“(very good)라는 표현을 써가며 높게 평가했다. 또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잘되어 가고 있다”(easy going)이라는 단어를 사용,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그러나 여수가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열정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는 두 가지 핵심 변수(key factor)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 회원국들에 꼭 전달하겠다”

다음은 17일 여수시청에서 이뤄진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여수를 둘러봤는데, 2010년 방문 당시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완할 점이 있다면.

▲도시가 깨끗하고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도로를 비롯해 과거 박람회 유치 신청당시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각종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년에 실사팀이 올텐데 한국정부와 전남도, 여수시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여수는 ‘국제적 도시’라는 이미지를 쌓고, 국제사회에 여수를 알리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호주와 이탈리아가 2012세계박람회 유치신청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호주 시드니의 경우 특정 기업(company)에서 의사 타진을 해 왔을 뿐 정부차원에서는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태다. 또 이탈리아는 2015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은 모로코, 폴란드와 경쟁해야 한다. 유치 가능성은 어떤가.

▲한국은 3개 유치 신청국 가운데 경제적, 국제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유일한 글로벌플레이어다. 모로코와 폴란드는 리저널플레이어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은 특히 세계적인 기업이 전세계에 포진해 있으며, 정부가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 박람회를 유치하려는 시민들의 열정도 뜨겁다. 여수가 진지하게(seriously) 임한다면 유치 가능성은 매우 좋다(very good).

-여수의 준비상황은 어떤가.

▲한국은 2010년 박람회 유치에 이어 두 번째로 2012년 박람회 유치에 도전하고 있으며, 지금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각계각층이 박람회 유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각종 SOC를 확충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박람회 유치도 잘되어갈 것(easy going)이라고 생각한다. 돌아가서 한국의 긍정적인 모습을 BIE 회원국에 충분히 전달하겠다.

-박람회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

▲BIE는 질적으로(quality) 좋은 박람회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주제(strong theme)와 함께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 높은 수준의 혁신, 각종 인프라와 SOC 확충 등이 필요하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로세르탈레스 BIE(세계박람회기구) 사무총장이 17일 2012년 세계박람회 후보지인 여수를 방문, 국도 17호선 공사 현장을 찾았다. 왼쪽부터 박준영 전남지사, 사무총장, 통역, 오현섭 여수시장, 김재곤 여수부시장. /나명주기자 mjna@

10·25 재보선 현장

한, 대선주자 지원 유세 경쟁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17일 10·25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호남을 찾았다. 한나라당 유력 대권주자들도 17~20일 전남지역 유세 지원에 경쟁적으로 나선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이재오 최고위원과 함께 고(故) 홍남순 변호사 영결식에 참석해 애도한 뒤 고인의 고향인 화순으로 이동해 임근옥 화순군수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벌였다.

이어 오후에는 해남과 신안을 방문해 설철호 국회의원 후보와 김영식 신안군수 후보의 선거 유세를 도왔다.

북한 핵실험 이후 재·보선 지원을 자제해온 강 대표가 이처럼 첫 번째 지원유세 지역으로 호남을 선택한 것은 재보선 선거 승리라는 단기적 목표보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장기적인 ‘호남 껴안기’ 전략의 일환이란 분석이 많다.

강 대표는 유세에서 “한나라당의 전신 정당들이 호남에 대해 잘못한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면서 “특히 5·18 문제도 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이제 5·18 묘역이나 참배하는 정당이 아니다. 호남을 껴안는 게 아니라 호남 품으로 들어가서 사랑받고 싶다”며 호남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이날 광주를 방문해 홍 변호사 영결식에 참석한 뒤, 오후부터 화순과 신안, 해남지역 상가를 후보들과 함께 돌며 지원유세를 펼쳤다.

손 전 지사는 “지역민들이 내미는 손길에서 예전과는 다른 따뜻함을 느꼈다”며 “당락을 떠나 최선을 다하면 후보나 당에게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홍 변호사의 영결식에 참석했던 박근혜 전 대표는 18일 화순과 해남, 진도, 신안 압해에서 지원 유세를 펼친 이후 기자단 및 지역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박양수 후보 ‘선거비용 공개’

○…잇딴 금품 살포로 전남지역 재·보선 분위기가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해남·진도 국회의원에 출마한 박양수 열린우리당 후보가 재보선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선관위와 ‘선거비용 공개 협약식’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박 후보는 17일 오후 2시 해남읍 선거사무소에서 선관위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선거 때마다 끊이지 않았던 금권선거 시비에 종지부를 찍고 금품 살포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거운동 도중 선거비용 공개를 약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후보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매일 매일의 수입·지출내역을 선거사무소 앞에 게시하게 된다.

16일까지 선거비용 수입은 정당지원금 2천800만원, 후보자 자산 1천500만원, 후원회 기부금 4천500만원 등 8천800만원이며, 지출은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및 실비 825만원, 홍보기획사 중도금 2천400만원, 후보자 선거운동비용 1천100만원 등 모두 3천318만원이라고 박 후보는 공개했다.

민주 지도부, 보선 지원 유세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17일 진도 5일장과 상가 등을 찾아 채일병 해남·진도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으며, 장상 공동대표는 이날 정완기 화순군수 후보와 함께 화순읍과 동복면, 남면 등지를 돌며 지원 유세를 가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